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 강우일 주교, “미주 사제 파견 체제 개편하겠다”

## 북미주 교포 사목부 새 대표에 최 봉원 신부 선임

북미주 교포 사목부 대표에 최 봉원 신부가 선임됐다. 한국 주교회의 이주 사목위원장 강 우일 주교는 이 덕효 신부 후임으로 마산 교구 소속 LA 성삼 한인 성당 주임 최 신부를 선임했다. 최 신부는 한국에서 육군 군종감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최 신부의 북미주 교포 사목부 대표 취임은, 지난 5월 초 샌프란시스코 사제 총회에 참석한 강 우일 주교가 북미주 한인 사제 파견 체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언급 이후 이루어져 앞으로 최 신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22일자 평화신문에 따르면, 강주교는 앞으로 북미주 교포 사목부 체제를 군중 교구나 멕시코 주교회의가 채택하고 있는 '세인트 제임스 소사이어티'와 유사한 체제로 변화시킬 것을 주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인트 제임스 소사이어티는 미국과 멕시코 양국 주교회의 합의에 따라 각 교구에서 미국에 파견되는 사제들을 선교회와 흡사한 소사이티에 일정기간 파견하고 담당 주교가 이들의 인사이동 등 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의 가톨릭 전 세계 주소록

에 따르면 캐나다를 포함한 북 미주의 한인 공동체는 171곳, 128개 한인 성당에 주임 신부 128명, 보좌 신부 9명이 한국에서 파견돼 있다. 한인 신부가 파견되지 않은 공동체는 43곳이다. 신자 수는, 2002년 말 이주 사목 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8만 1,659명, 캐나다 1만 5,110명으로 도합 9만6,769명. 2년 반 전의 통계임을 감안 하면 현재 북 미주 신자 수는 10만 명을 훌쩍 넘어 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거대한 북 미주 한인 천주교 공동체에 대한 사제 파견 및 인사가 각각의 한인 성당과 한국 각 교구와의 임의적 관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선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파견 사제에게 일정 기간 해외 사목에 관한 소양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사제의 인사 이동을 주관하게 하겠다는 강 우일 주교의 구상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사제 파견이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주임 신부와 신자들과의 갈등이 한국에서 파견되는 신부의 언어 능력 부족, 해외 사목과 교포 신자들의 배경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작으나마 한 가지 이유

### 2005 쇄신 세미나 일정

7/16-17	동부 성령대회: 동북부, 동중부, 동남부 봉사회: 이 데레사(201-947-4718)
9/2-5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디트로이트 성령 기도회: 천 안드레아(734-482-5796)
10/4-14	스페인 탐방과 파티마, 루르드 성모 발현지 순례: KSC
10/20-23	봉사자 세미나: KSC, 캘거리 성령 기도회: 성 성실(403-280-5279)
12/27-30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중남부 봉사회: 김 재문(832-640-1404)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복음선교를 위하여 최 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기도회 봉사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지난 몇달 동안은 전례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행사가 겹치게 되니, 자연 기도회 진행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편교회 교종(교황)의 교체로 인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바티칸도 잠시 일상적인 업무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편교회도 지역교회도, 우리 기도회도 일상적인 궤도에 올라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20세기에 제기된 여러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금 21세기에 들어 와서 해결되고 정리되는 과정이니 만큼 쇄신 봉사자들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교회의 공식방침을 숙지하여 복음선교 일선에서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와 자연과학의 획기적 진전에 따라서 진리의 절대성이 흔들리고 윤리적 진리의 상대성이 제기되면서 신앙적 진리에도 다원화 사고 방식이 문제를 가져 왔습니다. 영성 분야에서도 mind control과 new age movement가 일부 종교 지도자들까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기도회 공지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시면 KSC 사무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봉사자와 쇄신가족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작은 나눔 큰 기쁨**

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험한 오솔길을 신작로로 만들듯이,

실낱같은 시냇물이 모여 힘찬 강물이 되듯이,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을 이룹니다.

성령 가족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미주 한인 사회에 성령의 불을 놓아  
하느님 나라 건설의 주춧돌이 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쇄신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면에서 계속-**

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선교회에서의 파견 신부 교육은 북미주 한인 천주교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선교회의 구성과 사제 파견 체제 개편은 북미주 교포 사목부 새 대표인 최 봉원 신부가 추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표 사제 선임은 여느 때 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북미주 교포 사목부 대표 사제의 미국 내 전체 한인 신부 대표성은 미국과 한국의 주교회의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교회법 상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항이다.

1989년 미국 주교 회의 행정위원회는 교황 바오로 6세의 교서 '이민 사목' (Pastoralis Migratorum Cura, 1969.8.15)에 의거해 이주 사목위원회로 하여금 미국 주교회의 안에 다른 나라 주교 회의의 대표사제를 두는 것을 승인한 바 있고, 1993년 미국 주교회의 이주 사목위원장 맥케릭 대주교가 내한, 미국 내 한인 교회를 위한 모든 사목적 협조 사안은 양국 주교회의 이주 사목위원회를 통해서만 성사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이주 사목위원회가 선임한 대표 사제 최 봉원 신부의 사무국인 북미주 교포 사목부가 결국은 새로운 사제 파견 체제의 중심 기관이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강 주교가 사제 파견 체제 개편이 한국의 군중 교구와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육군 군중감을 역임한 최 신부를 선임한 것은 최 신부를 중심으로 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임을 뜻한다

**감사합니다.**

6월 20일 현재 후원금

김 카타리나	St. Paul (MN)	\$200.00
임 벨라텃다	Maple Grove (MN)	\$100.00
김 데레사	Boston (MA)	\$100.00
김 스텔라	Arcadia (CA)	\$100.00
문 루시아	Calgary (AB)	\$100.00
양 데레사	Edmonton (AB)	\$100.00 (C)
신 베드로	Medicine Hat (AB)	\$200.00 (C)
캘거리 기도회	Calgary (AB)	\$500.00 (C)
샤애틀 기도회	Seattle (WA)	\$500.00
박 마리아	Seattle (WA)	\$100.00
노 수산나	Waipahu (HI)	\$100.00

# 성모님의 발현과 교회의 가르침

과달루페의 성모님



지난 5월 광주 교구장 최 창무 대주교는 나주 성모님 발현과 관련된 사목권고에서 “교회의 공식 인준이 없는 나주의 ‘성모동산’이나 올라야의 집이나 ‘경당’에서 교회 이름으로 집회를 주선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은 건전한 신심행위도, 합당한 전례 행위도 될 수 없다.”며 신자들이 교회의 위계 질서와 교도권에 순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6월 12일자 평화신문에 따르면, 동북부 사제 협의회장 한 덕수 신부는 지역 사제들에

게 보낸 서한에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성모 발현지는 현지 교구의 인준을 받지 않은 곳이므로 방문을 지양하고 교회 신문에서도 광고 게재를 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신부는 메주고리에도 교황청에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므로 개인적 방문은 무방하나 사제가 인솔하는 순례는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모 발현이란 성모 마리아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을 초월한 특이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교회는 이러한 성모 발현의 승인에 무척 신중하다. 주관적인 환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모 발현의 이유와 메시지이며 기적이나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가 아니다.

교회는 사적 계시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과 관심은 이단으로 빠지거나 신앙생활에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 성모 발현은 대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적 계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해 기적이나 신비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들이 바로 신앙교의나 복음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메시지라도 교도권의 교의에 부합되어야 한다. 성모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신앙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와 호소, 간청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친이자 교회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세상의 죄악을 슬퍼하고 회개하며 끊임없이 보속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성모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성모 발현과 메시지, 기적 등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회개와 보속, 신앙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데 참된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발현지는 멕시코의 과달루페(1531), 프랑스의 파리(1830), 라 살레트(1846), 루르드(1858), 폼페(1871), 아일랜드의 노크(1879), 포르투갈의 파티마(1917), 벨기에의 보랭(1932-2), 바너(1933)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성모 발현은 모두 교회의 정식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순례자가 많아진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에는 아직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성모가 발현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1933년 바너 발현 이후 발생했던 성모 발현들 중에서 교회의 공식 인가를 받지 못한 성모 발현이 무려 200여건 넘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지역의 발현과 관련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 것이다.

## 기도회 소식 캐나다 켈거리 성령 기도회

### 세미나 통해 사랑과 평화의 기쁨 충만

성 성실 베드로 기도회장

저희 켈거리 성령 기도회에서는 KSC 봉사자들을 초빙하여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본당에서 성령세미나를 치렀습니다. 작년에는 128명이 참가하였고 금년에는 91명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 30%가 작년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미사에 참여하는 약 400여명의 신자 중 모두 190명이 성령세미나에 참가한 경험이었습니

다. 작년에 성령세미나를 유치할 때 저희 기도회에서는 신자들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자들이 본당 신부님과 하나되어 우리 본당이 오직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과 평화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였고, 현재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령세미나를 통하여 새로 네 쌍의 부부가 매주 기도회에 참석하는 고정 멤버가 되어 앞으로 저희 성령 기도회를 이끌어 나갈 큰 재목들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알렐루야!

## 바르고 참된 신앙 생활을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공지문(요약) -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사목권고 -

선임 교구장님께서서는 광주대교구의 목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있어 바르게 살고 참된 신심을 갖도록 신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나주 율리아와의 관계된 일련의 현상들과 사건들에 대하여 두 차례 로마 교황청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과 한국 주교단의 동의를 거쳐 1998년 1월 1일부로 나주 본당 윤 율리아에 대한 공지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신자들에게 참된 신심은 결실 없이 지나가는 일시적 감정이거나 허황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에 있으며(교회현장 67항), 이례적 특은(特恩)은 경솔하게 청할 것도 아니고 사도적 활동의 결실을 이런 특은에서 얻으리라고 기대할 것도 아니라는(교회현장 12항) 교회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들으며, 가톨릭 교회로부터 인준된 여러 형태의 성모 신심을 깊이 하는데 열정을 쏟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명하지 않고 이의와 비판으로 일관했습니다.

본인은 2001년 5월 "성모 성월을 마치며"라는 사목 서간을 통해 건전하고 바른 성모 신심을 지킬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하며 나의 선임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님의 공지문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8월에 윤 율리아 본인과 그의 장부 김 율리오를 세 번 직접 면담했습니다.

2005년 2월 4일부로 나주 본당 신부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교도권에 순명하며 통상적 신앙 생활을 하고 이를 2005년 4월 3일(천주 자비의 주일)까지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임 교구장 윤공희 빅토리오 대주교님의 공지문에 따라 일체 광고나 선전 등을 하지 말 것과 그곳에서 공적인 예배 행위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신자로서 본당에 나가 판공 성사를 볼 것과 교무금을 납입할 것, 윤 율리아와 관계되는 "성모동산"이나 "경당"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금전 출납 현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등기 사항, 회계업무에 대하여 투명한 자료를 교구청에 제출하여 교구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김만복 율리오(윤 율리아의 남편)는 10쪽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내며 "대단히 황송하오나 가능하신 한 빠른 시일 내에 답서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대주교님께서 원하시는 통상적 신앙생활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자

가 정상적이고 일반적 신앙생활을 하는 데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더구나 1998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일까지 지역 공동체의 목자인 주교가 세 차례 분명한 사목적 권고를 하였는데 이에 순명할 뜻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사적 계시"로 체험했다거나 "기적"을 보았다는 주장으로 교도권에 도전하고 공동체에 일치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식 교회와는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으로서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발표합니다.

1) 누구든지 교회의 공식 검증과 인준을 받지 않은 일을 "사적계시"라든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선전하며 광고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와 무관한 일이며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교회의 공식 인준이 없는 나주의 "성모동산"이나 율리아의 집이나 "경당"에서 교회 이름으로 집회를 주선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은 건전한 신심행위도, 합당한 전례행위도 될 수 없다.

3) 1998년 1월 1일, 2001년 5월 5일 발표된 광주대교구 교구장의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역 교회공동체의 합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교도권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4) 나주 율리아가 주장하는 소위 "사적계시"나 "기적"을 홍보하거나, 숨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순례"하려는 행위는 교회의 순명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건전한 신앙 생활이라 할 수 없다.

5)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그가 어느 교구, 어느 나라에 속하더라도 교회의 공식 신분을 지녔으므로 본 광주대교구 주교의 분명한 허락 없이 "성모동산"이나 나주 윤 율리아가 마련한 "경당"에 참배한다거나 그곳에서 종교의식, 전례 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번 확인하며 권고합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로서 일치와 화합 안에 신앙생활을 하며, 사도들의 후계자며 지역 교회의 목자인 주교에게 순명하기를 바랍니다.

이 공지문이 광주 대교구와 한국 교회, 나아가서 세계 교회에 바르고 참된 신앙 생활과 신심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계시며 늘 교회를 바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 위탁하고 신비체의 머리이시며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자비로운 사랑과 은총을 청합니다.

2005년 5월 5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최 창무  
안드레아 대주교